

삶의 동반자였던 등(燈) 기구는 불을 붙이는 심지와 연소물인 기름을 담는 그릇인 등잔, 그리고 받침대인 등잔대로 크게 나뉘지는데 이것을 등잔이라고 일컫는다. 앓은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돼 방바닥에 놓고 사용한 등잔대는 우리 전통 등 기구에 있어 중요한 구조물이며 이것은 온돌 문화에 따른 좌식생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내용인 등잔대와 촛대, 좌등, 서등, 벽걸이등과 실외용인 제등, 조족등은 생활도구로서의 기능과 함께 미의식과 실용성을 고려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전깃불이 없던 시절, 어둠을 밝히던 등잔 불빛은 백열전구와 형광등을 거쳐 LED 빛에 밀려 우리 곁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김형구(74) 한국등잔박물관장이 지금은 고인이 된 부친과 함께 조부 때부터 평생 수집한 등 기구를 모아, 지난 1997년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등잔박물관을 세웠다. 1999년에는 박물관을 재단법인으로 사회에 환원했다. 김 관장은 “어린 시절부터 모으는 것을 좋아해 아버지



한국 등잔 박물관

우리의 아름다운 불그릇 ‘등잔’

옛 선조들은 가을을 등잔불을 당겨놓고 책을 가까이 하기에 좋은 계절이라 하여 ‘등화가친(燈火可親)’의 계절이라 했다. 전깃불이 들어오기 전까지 철쭉 같은 어둠을 밝히던 등잔과 그 불빛은 고향처럼 그리운 이름이자 사라져간 아련한 추억이다. 선인들과 늘 함께했던 등잔, 촛대, 서등, 제등 등 다양한 전통 등 기구를 둘러볼 수 있는 한국등잔박물관을 찾았다.

글 이창호 기자·사진 전수영 기자



부엌

KITCHEN

동이 트기도 전, 어머니는 부엌의 조왕중발에 정화수를 담아 올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기 전의 부엌에서 벽걸이등잔의 은은한 불빛으로 오붓한 부엌살림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어느덧 부엌에서는 훈훈한 온기가 느껴지고 아궁이에서 나는 구수한 밥 냄새와 찌개 냄새가 입맛을 돋웁니다.



등잔대는 재료나 형태, 쓰임새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등잔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등경'과 높이 조절 없이 사용하는 '등가'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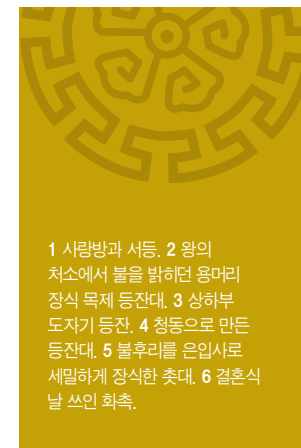
를 따라 서울 인사동을 수시로 드나들며 조상들의 손때가 묻은 생활 유물을 모았다"면서 "우리나라는 온돌이란 독특한 주거문화 때문에 등잔이 발전했는데 등잔에는 시대의 예술성도 반영돼 있다"고 말한다.

예술로 승화한 생활도구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에 위치한 한국등잔박물관은 독특한 외형부터 눈에 띈다. 외형은 성곽 높은 곳에 쌓아 적을 쉽게 관찰할 수 있게 만든 방어시설인 수원 화성의 공심돈을 본떠 설계한 것이다. 지상 1, 2층은 주 전시실이고, 3층은 특별전시실로 이용되고 있다. 지하 1층 상우당은 세미나실과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본관 건물 앞에는 농기구 전시관이 따로 마련돼 있다. 박물관 1층은 '어둠을 밝힌 빛'이라는 주제로 부엌과 찬방, 안방, 사랑방 등을 그대로 재현해 놓아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서 등잔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다. 부엌엔 부뚜막 뒤쪽 바닥에 두고 사용하는 부엌바닥등과 벽갈이등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부엌바닥등은 질그릇으로 만든 집 속에 등잔을 넣어 바람이나 음식을 끓일 때 생기는 수증기에도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다. 벽갈이등은 거추장스럽지 않은 크기로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길조의 의미가 담겨 있다. 화조도 병풍과 장롱, 화로, 여성들의 액세서리로 꾸며진 안방에서는 고사리말림형 유기등경이 전시돼 있다. 안방에서 주로 사용한 이 유기등경은 기둥에 4단의 걸이를 만들어 등잔받침과 기름받이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마른 고사리 형태의 기둥 상단부 장식은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양식이다. 등잔대는 등근 받침에 3~4단의 걸이용 기둥을 세우고 등잔과 기름받이를 위아래로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등경(燈檠)과 높낮이의 조절 없이 맨 위에 등잔을 하나 얹은 등가(燈架)로 나뉜다. 등경의 기름받이는 등잔의 기름이 타면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기둥의 걸이용 단은 필요에 따라 등잔의 높낮이를 조절하려고 만들어진 것이다.

손님 접대와 자녀 교육의 공간인 사랑방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을 때 사용하던 서등(書燈)이 시선을 끈다. 밝기를 높이기 위해 심지를 돌우는 부분을 두 개(쌍심지) 또는 네 개(사심지)로 만든 것까지 있다. 기름도 그만큼 많이 소모해 '부자 등잔'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서등은 '송사(宋史)'에 "팽년이 학문을 좋아하나 어머니가 아들이 밤늦게 공부하는 것을 근심하므로 팽년이 구등을 만들어 어머니를 속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서등의 효시라고 한다. 사랑방 유리창에는 "아버지의 글 읽는 소리가 사랑방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아버지는 경상 위에 올려놓은 서등 불빛에 의지하여 글을 읽으시고, 어쩌다 친구분이 먼 길에서 찾아오는 날이면 늦은 밤까지 사랑의 등불은 꺼질 줄 모릅니다. 등유로 불을 피워 불빛이 무척 밝은 사



1 사랑방과 서등, 2 왕의 처소에서 불을 밝히던 용마리 장식 목제 등잔, 3 상하부 도자기 등잔, 4 청동으로 만든 등잔대, 5 불후리를 은입사로 세밀하게 장식한 촛대, 6 결혼식 날 쓰인 화촉.





1



2

1, 2, 3 경기 용인시 모현면에 있는 한국등잔박물관에 가면 전깃불이 들어오기 전까지 선조들과 늘 함께했던 등잔, 촛대, 호롱 등 다양한 전통 등 기구를 만날 수 있다. 4 김형구 한국등잔박물관장.



량방의 서등에서는 흔들리는 불빛과 함께 검은 그늘음이 피워 오르곤 합니다. 가끔 재떨이에 담뱃대를 내리치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옵니다”라는 글이 쓰여 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 옆에는 결혼식 날 쓰던 조선 후기의 화촉과 등잔, 부싯돌이 전시돼 있다.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꽃을 새겨 넣은 화촉은 벌꿀 밀랍으로 만든 초인데, 불을 켜면 은은하게 꿀 냄새가 난다. 화촉은 왕실이나 일부 상류층에서만 쓰였고, 일반인에게는 흔레 때만 사용이 허락됐다.

2층엔 ‘일상을 지킨 빛’이라는 주제로 선인들이 직접 사용하던 등잔과 등잔대, 촛대, 도자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등 기구가 어둠을 밝히는 생

활필수품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담은 물건임을 보여준다. 뚜껑이 없는 접시형, 종지 형태의 등잔은 소기름과 돼지기름, 참기름, 아주까리기름, 피마자기름을 주로 사용했으며 어촌에서는 고래, 정어리기름을 주로 썼다. 대한제국 고종 때 석유가 수입되면서 뚜껑에 십자꽃이 그려 붙은 ‘석유등잔’으로 바뀌었다.

촛대는 주로 왕실이나 상류계층에서 사용했는데 이는 초의 원료가 워낙 귀하고 만드는 방법도 쉽지 않아 대량생산이 어려웠던 까닭이다. 은입사회자문무쇠촛대는 육각형의 밑받침, 기둥, 초받침, 불후리를 은입사로 세밀하게 장식했다. 불후리의 중앙에 ‘희’(犧) 자를 새겨 길상의 의미를 더했다. 불후리는 불빛이 사방으로 퍼지는 것을 막고 앞면만을 비추도록 반사시키며 필요한 곳을 선택적으로 밝게 하도록 회전할 수 있다.

이주연 한국등잔박물관 에듀케이터는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숨결이 묻어 있는 등잔에도 시대에 따라 유행이 있었다”며 “불교 중심 사회였던 고려 시대에는 염주 문양 촛대를, 유교 중심



3

의 조선 시대에는 죽절 문양의 등잔대를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염주형 황동 촛대의 기둥은 크기와 형태가 다른 두 종류의 염주문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했는데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어 고려 시대의 탁월한 조형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광산에서 사용한 철제 휴대용 촛대는 바닥에 놓는 대신 벽에 꽂아 사용했다. 무엇보다도 정감이 가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목제 등잔대이다. 하나의 나무를 통째로 깎아서 만든 등잔대, 고사목을 그대로 이용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살린 등잔대, 등잔걸이로 큰 전복껍질을 사용한 촛대 겸 용 목제 등잔대, 등잔대 기둥에 대나무의 죽절문을 그대로 사용해 멋을 살린 등잔대, 등잔대 밑받침에 서랍을 달아 실용성을 더한 등잔대, 왕의 처소에서 불을 밝히던 용머리 장식 목제 등잔대 등이 흥미롭다. 목제 등잔대는 하나하나에 선조들의 손때가 묻어 있어 정겹다. 특히 청자이중등잔은 깊이가 다른 사발 2개를 겹쳐 구워서 사발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 넘쳐흐른 기름이 입술 부분의 구멍을 통해 내부로 흘러

들어가 기름의 낭비를 막는다. 선조들의 애뜻한 일상을 보는 듯하다.

순라꾼들이 밤에 순찰할 때 쓰던 조족등도 흥미롭다. 발쪽을 비춘다고 해서 조족등인데 도적을 잡을 때도 쓰기에 도적등이라고 불렀다. 겉모습이 박처럼 생겼는데, 나무나 쇠로 틀을 하고 겉에 기름종이를 두껍게 발라 어둡게 하고 밑쪽은 터진 모습이다. 등 안에는 초를 꽂는 철제의 회전용 돌쩌귀가 있어 등을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촛불이 꺼지지 않는다. 신윤복의 그림 ‘월하정인’(月下情人)에서 보듯이 깜깜한 밤길을 다닐 때나 예식에 사용했던 제등은 주로 사각형 모양의 쇠틀 안에 초를 꽂고 천이나 한지, 유리 등으로 씌운 손전등이다.

한국등잔박물관은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굼다락 토요문화학교와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휴관일은 월·화요일이다. 관람료는 일반인 4천 원, 중·고·대학생 2천500원, 노인·어린이 2천500원이다. ☎

문의 ☎ 031-334-0797



4